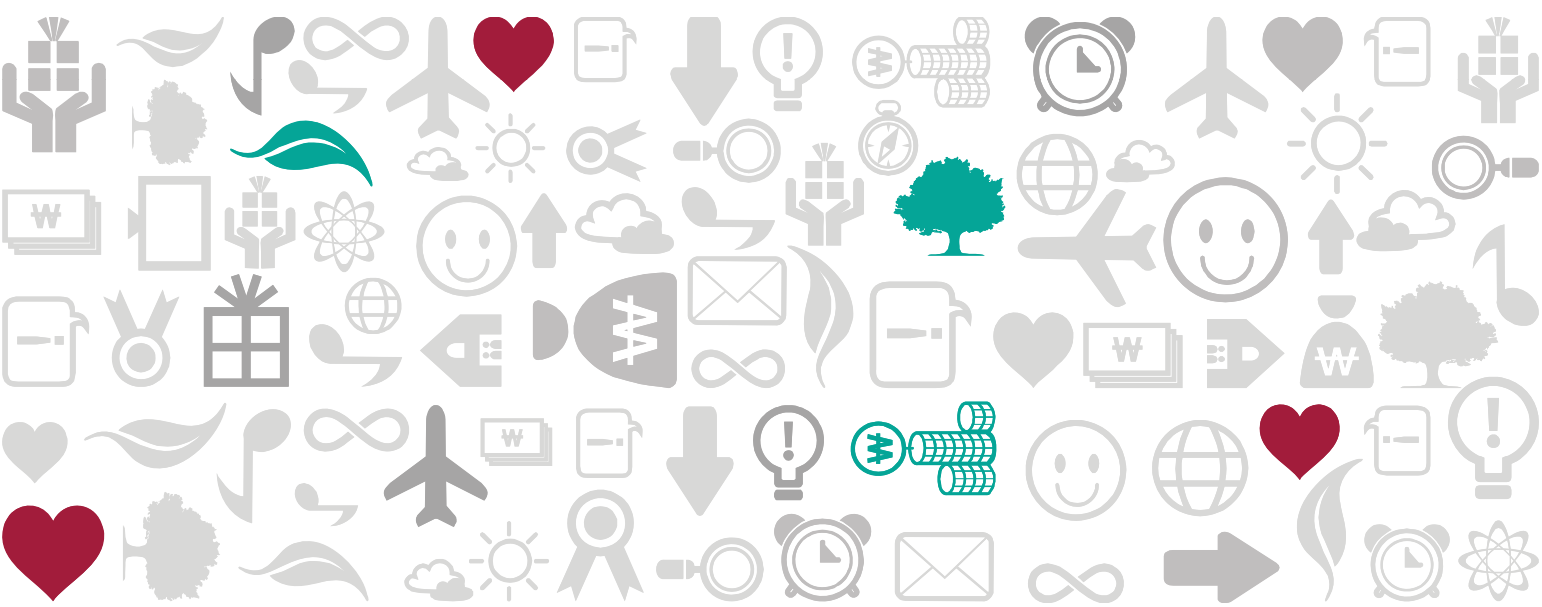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01
2014년 No.01

은퇴설계를 위한

# 하나 행복가이드

개인연금 가입자 특성 및 채널선택 현황 분석과 시사점
정부의 100세 시대 금융정책 방안의 영향 분석과 함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 | | |
|---|---|---|
| 하나은행 | 행복디자인센터 | (02) 2002 – 1147 |
| | 퇴직연금부 | (02) 3788 – 5454 |
| 외환은행 | 퇴직연금실 | (02) 729 – 0806 |
| 하나대투증권 | 연금사업부 | (02) 3771 – 7173 |
| 하나생명 | 행복금융프라자 | (02) 3709 – 72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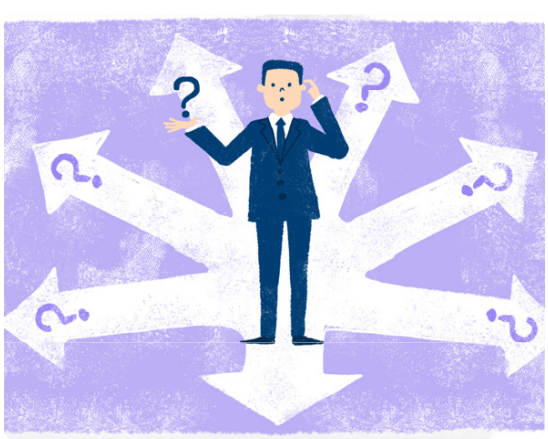
# Contents


| | | |
|---|---|---|
| 이슈 포커스 | 개인연금 가입자 특성 및 채널선택 현황 분석과 시사점<br>정부의 100세 시대 금융정책 방안의 영향 분석과 함의 | 01 |
| 노후 재무설계 | 50대 김평균씨,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필요<br>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 전략이 유효<br>투자상품은 해외 주식을 포함하는 혼합형 상품 구성이 필요<br>1월 주식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 영향으로 탄력적 반등 기대 | 09 |
| 국내외 단신 | 노인빈곤 위험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로 해결<br>2014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br>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정립방안 | 14 |
| 상품브리프 | 가족간 불화를 막는 상속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 18 |
| 행복한 노후디자인 | 겨울철 건강 관리 | 20 |
| 하나 뉴스 | 하나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익신탁 기금 및 성금 기탁 등 | 22 |
| 연금 통계 | | 23 |

# 개인연금 가입자 특성 및 채널선택 현황 분석과 시사점

연구원 심 윤 보
(simjunil@hanafn.com)

"개인연금 수요자 인식조사 결과 개인연금 가입경험자는 전체 53.3%이고, 그 중 33.8%인 자발적 가입자들은 적극적 투자행태와 높은 상품만족도를 보였다. 기존 가입채널에서는 생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향후 가입채널 선호도에서는 은행이 신뢰성과 접근성의 이유로 최우선 선호 되었지만 각 채널간 만족도는 59~60점으로 차별성이 없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회사들은 채널 및 상품 간 차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당국은 개인연금 필요성 홍보 및 세제혜택 강화 등 인프라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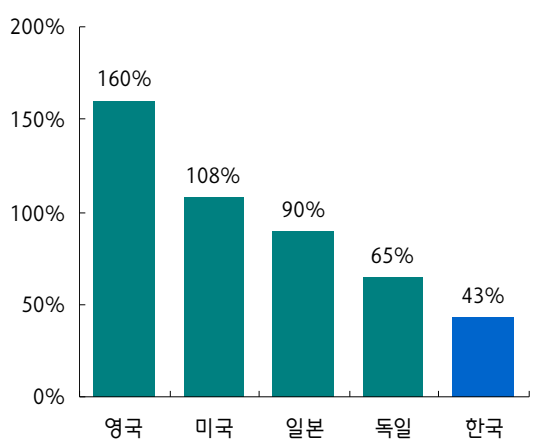


##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개인연금시장은 2006년 이후 평균 12%의 성장율을 시현 중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부양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내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등 국제기구 권고비율인 40~50%에 크게 못 미치는 20%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12년 GDP의 5.9%에서 2020년에는 GDP의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연금 특히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 가계의 1인당 GDP 대비 보험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43% 수준으로 미국(108%), 영국(160%), 일본(9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전망 역시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개인연금 시장은 2006년 이후 평균 12%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3년 10월 국내 금융소비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연금 시장 수요자의 특성 및 금융회사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국가별 GDP 대비 보험과 연금자산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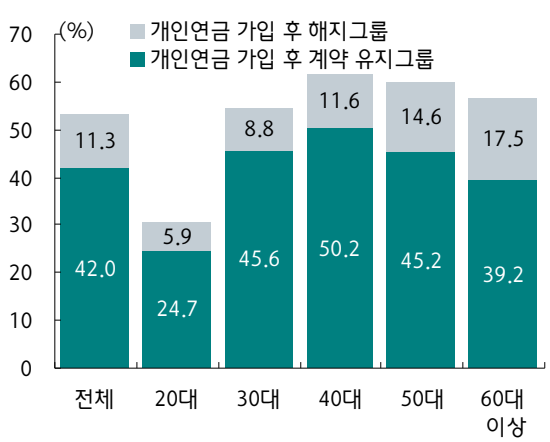

자료 : 각 국 자금순환표(2012년 기준)

## 개인연금 가입비중은 53%로 금융자산규모가 클수록 가입비중이 높게 나타남

개인연금의 가입비율은 중도해지자를 포함해 53.3%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그룹의 가입비중이 40.2%인 것에 반해 5억원 초과 그룹의 가입 비중은 66.1%를 보이며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개인연금 가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연금 가입이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노후준비 방해요인 1순위로 '현재 생활비 부족'을 선택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연금 자발적 가입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가입 자발성 정도를 1부터 10까지 구분하고 8~10은 자발적, 1~3은 비자발적 가입자로 분류하였을 때 개인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33.8%로 비자발적 가입자 1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자발적 가입자들은 개인연금 가입 시 90% 이상이 '노후대비',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요인을 고려한 반면 비자발적 가입자들은 47.6%가 '상품 모집인 권유', '지인의 권유' 등의 비적극적 요인을 자발적 가입자에 비해 비교적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개인연금 상품 가입 및 해지비율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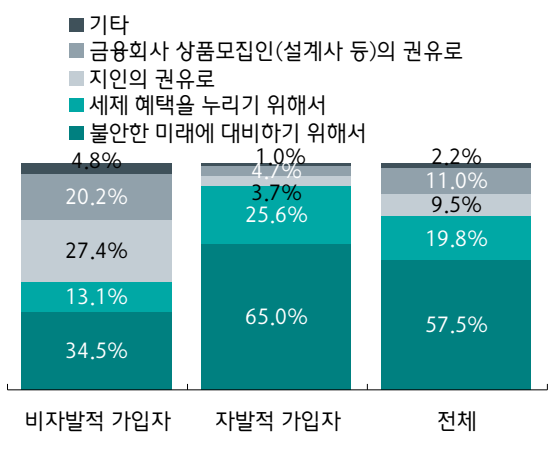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자발적 가입자(68점)가 비자발적 가입자(4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상품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만족도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1년 이상~3년 미만 자발적, 비자발적 가입자의 만족도 차이는 15점이었던 것에 반해 10년 이상 가입자들의 만족도 차이는 29점까지 벌어졌다.

## 개인연금 가입채널 1위는 생명보험이며 각 채널별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가입 채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을 통해 가입한 응답자의 비중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한 응답자의 비중이 각각 30.3%, 10.4%로 조사되었다. 채널 선택이유로 보험사는 '직원의 권유', 은행은 '회사에 대한 신뢰성', 증권사는 '높은 기대수익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채널 간의 특성이 드러났다. 반면 개인연금 상품 가입 후 채널별 개인연금상품 만족도의 경우 증권사는 60점, 은행, 생명 및 손해보험은 5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상품차별화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발적, 비자발적 가입자들의 개인연금 가입 채널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가입에서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 자발적·비자발적 가입자의 개인연금 가입 동기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7.1%로 은행의 21.4% 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자발적 가입에서는 은행의 비중(35.0%)과 생명보험의 비중(42.1%)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이 비자발적 가입에서 생명보험의 비중이 은행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생명보험의 설계사 권유에 의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가입채널선호도 1위는 은행이며 선정 이유로는 신뢰성과 접근성을 제시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개인연금 가입채널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존 가입채널에서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르게 은행이 46.7%로 생명보험(29.9%)과 증권사(12.7%)를 앞지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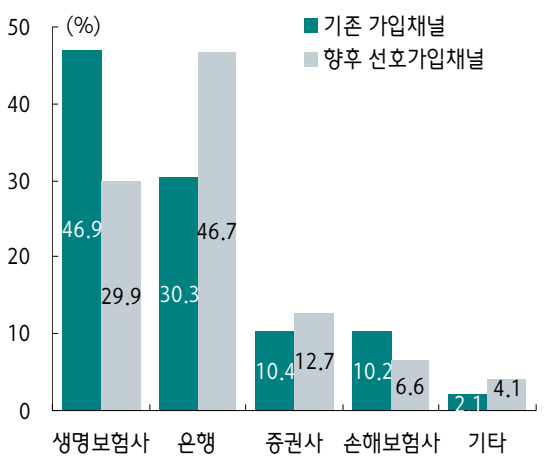
은행 선택 이유로서 '신뢰성(34.0%)'은 생명보험(4.9%)과 증권사(2.2%)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접근성(15.0%)' 역시 1% 대에 머문 생명보험과 증권사를 크게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은행을 통해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응답자의 73.4%는 향후에도 개인연금 상품 가입시 은행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생명보험을 통해 가입한 응답자가 향후 같은 채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46.8%에 불과하며 36.6%는 향후 은행을 통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역시 은행 선택이유로 신뢰성 및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개인연금 해지그룹과 비가입자 그룹도 향후 은행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는데 이 역시 상품 차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인연금 상품 가입 시 회사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채널별 직원의 신뢰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은행의 신뢰도는 6.09로 증권사(5.52), 보험사(5.4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 직원의 상품 전문성 및 타 회사 상품에 대한 지식정도는 증권사나 보험사 직원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인연금 중도해지자 비중은 금융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증가

개인연금 중도해지자의 비중은 전체의 11.3%로 나타났으며 중도해지자 비중은 20대 5.9%, 30대 8.8%, 40대 11.6%, 50대 14.6%, 60대 이상 17.5%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그룹의 중도해지 비중은 13.1%였던 것에 반해 5억원 이상의 고자산그룹의 중도해지 비중은 5.7%에 불과해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개인연금 해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개인연금

### 개인연금 상품 가입채널 및 향후 선호 가입채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개인연금 가입채널 Switching Matrix

(단위:%)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이 높은 채널 \ 기존 상품 가입 채널 | 은행 | 생명보험사 | 증권사 | 손해보험사 | 기타 |
|---|---|---|---|---|---|
| 은행 | **73.4** | 36.6 | 27.6 | 40.0 | 16.7 |
| 생명보험사 | 14.3 | **46.8** | 8.0 | 21.2 | 27.8 |
| 증권사 | 7.9 | 6.4 | **57.5** | 9.4 | 16.7 |
| 손해보험사 | 3.6 | 5.6 | 4.6 | **22.4** | 5.6 |
| 기타 | 0.8 | 4.6 | 2.3 | 7.1 | **33.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입 후 유지 역시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연금 중도 해지자의 해지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자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30대 개인연금 중도해지자 그룹의 상품해지 사유를 보면 '상품 불만족' 또는 '타 상품으로의 교체를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48.8%로 타 연령층 평균인 33.2%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및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고 금융자산 집단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신규상품 교체의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발적 가입자 그룹은 비교적 높은 상품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상품 교체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비자발적 가입자 그룹에 비해 14%p 높은 58%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적극적인 투자행태를 잘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이 원하는 교체 상품은 '다른 연금 및 보험상품(53.0%)', '예·적금(28.7%)', '펀드(12.4%)'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자발적 가입자들은 교체상품선호도로서 예·적금이 38.9%, 펀드가 5.6%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비자발적 가입자들의 비적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 보유상품 대신 가입하고 싶은 신규상품

(단위:%)

| 구분 | 비자발적 가입자 | 자발적 가입자 |
|---|---|---|
| 다른 연금 및 보험상품 | 50.0 | 53.0 |
| 예 · 적금 | 38.9 | 28.7 |
| 펀드(MMF, ELS 포함) | 5.6 | 12.4 |
| 주식 | 5.6 | 5.4 |
| 기타 | 0.0 | 0.5 |
| 합계 | 100 | 100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개인연금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금융회사들은 비교적 낮은 개인연금 상품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각 금융회사 간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증권사는 상품의 수익률을 강화하고 생명보험은 설계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회사 상품 간 차별성 확보를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은행은 자발적 가입자와 금융자산 규모가 작은 집단의 가입 선호도가 높아 개인연금 시장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연금 상담직원에 대한 상품의 전문성 제고 및 타 상품에 대한 교육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책당국은 '100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연금포털 구축,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 장기유지 수수료 할인 등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중 장기유지 시 수수료 할인,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대책은 개인연금 해지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연금 자발적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중요성과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정책당국 중심으로 금융회사들과 연계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1인당 400만원으로 GDP 대비 15% 수준인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미국(43%), 스위스(46%), 호주(38%)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 ·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100세 시대 금융정책 방안의 영향 분석과 함의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금융당국은 빠른 고령화 추세와 국민들의 노후 준비 미흡에 대응하기 위하여 100세 시대 대비관련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노후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담고 있다. 향후 이들 방안들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노후설계 컨설턴트의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 고령화 추세와 노후 준비 미흡에 대응하기 위해 100세 시대 금융 역할방안 발표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내의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국민들의 노후 준비 미흡에 대응하기 위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의 고령화는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을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자 부양비율과 노령화지수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으로 OECD 평균 63.6%에 크게 못미치고,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의 평균 빈곤율 [1] 도 2012년 기준 50.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세부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시장 및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금융권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노후대비 자산형성 기능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제시

금융위가 발표한 100세 시대 관련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내용은 크게 노후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기능 강화, 노후 건강보장 기능 제고,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지원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먼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연금포털 구축, 미래설계센터의 개설을 통한

1) 65세이상 고령자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비중

취약계층에 대한 1:1 매칭 노후대비 교육의 실시이다. 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가 공 · 사적 연금 가입 및 적립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한곳에서 파악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각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관련 컨설팅시 연금포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설계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 상담에도 활용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설계센터는 취약계층의 노후설계관련 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150~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신입사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1:1 매칭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기능 강화 방안은 사적연금 제도의 개선과 장기 자산형성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사적연금 제도의 개선은 사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유지율 등으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연금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입절차 등의 완화를 통한 가입확대, 장기유지시 수수료 할인 및 보험료의 납입유예 등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위탁운용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여건의 조성과 더불어 일시금 수령 완화,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DC 및 IRP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별도로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 적용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급규모 및 가입대상 확대, 가입자 편의성 제고, 가교형 주택연금의 개발 등이 계획되고 있다.

장기 자산형성 활성화 측면에서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등 장기투자상품의 활성화와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식형 펀드에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 100세 시대 금융정책 추진 기본 방향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노후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제고<br>· 연금포털 구축 :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무컨설팅 지원<br>· 미래설계센터 개설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 1:1 매칭 노후대비 교육실시 |
| 노후대비 자산형성 기능 부족 | – 사적연금 제도 개선 방안<br>· 개인연금 : 가입절차 완화, 장기보유 유도, 위탁운용형 상품 등 상품 다양화 추진<br>· 퇴직연금 : 효율적 자산운용 여건 개선, 연금수령 촉진,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예금자 보호 추진<br>· 주택연금 : 공급 및 대상 확대, 편의성 제고, 가교형 연금 개발<br>– 장기 자산형성 활성화<br>·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 사회 초년생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br>·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개방형 판매채널 구축,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독립투자 자문업 신설 |
| 노후 건강보장 기능 부족 | – 종합적인 노후 의료서비스 제공<br>· 노후 실손 의료보험 등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개발<br>· 고령층 보험금 청구 지원 등 노후 건강보장을 위한 편의성 제고 |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 |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br>· 장수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는 장수채권의 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지원 |

자료 : 금융위원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로는 개방형 판매채널의 구축, 금융상품 자문업의 도입 및 독립투자자문 등록요건 단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 자문업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상품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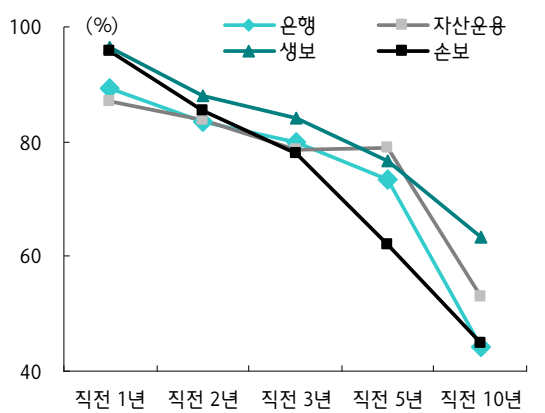
셋째로는 노후 건강보장 기능의 제고를 위해 노후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실손의료보험 및 현물 서비스 보험 상품의 도입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수준은 현행대비 70~80%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현물 서비스 보험 상품은 노후 간병, 치매 등과 관련한 현물서비스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장수리스크를 금융회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2] 의 발행 추진이다.

##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의 활성화 기여와 더불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강화 기대

금융당국이 발표한 각 세부계획안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연금 시장은 연금가입 절차 등 개선, 유지율 제고 노력 및 다양한 상품의 개발 등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장기 수수료 할인, 연금저축 보험의 각종 계약유지관련 편의성 제고, 계약이전 간소화 등의 유지율 제고 안은 현재 10년 경과시점에서 평균 52.4% 수준인 유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납입유예, 실효계약의 부활을 위한 편리성 제고 등은 연금저축의 75.5%(201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의 해지 감소로 이어져 유지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만 존재하는 시장에 금융사가 위탁을 받아 운용이 가능한 위탁운용형 상품의 도입은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인연금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연금시장은 최근 노후 소득수단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기초보증료 인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상대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급여력의 확충 및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의 대상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 주택연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기초보증료 인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도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퇴직연금시장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여건 조성 등의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고, 별도의 예금자 보호 추진도 현재 중도해지가 대부분 가계의 재무적 어려움 때

**금융사의 개인연금상품 경과 연도별 계약 유지율**




주 : 1) 02년중 신계약 건수 중 현재(12.6월말)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수 비율
2) 보험의 경우 실효계약을 유지계약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2012.10

2) 장수채권은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으로 정부 등이 발행하고, 보험사 등 연금지급자가 투자하는 구조

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경우 중도 해지의 완화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은 연금 및 자산형성관련 다양한 상품의 출시 등으로 자금유입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세제혜택 펀드의 경우 기존의 재형저축과는 달리 소득공제혜택이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주어지고, 최소 주식투자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개인연금 상품으로 위탁운용형의 허용, 판매채널의 다양화, 집합투자상품 판매만을 자문하는 자문업의 신설 등은 펀드판매의 활성화와 더불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금융업권은 연금 고객의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장수 리스크 헤지 용이성 제고로 장수위험관련 상품개발 촉진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의 개발 경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사들은 향후 정부가 구축하는 연금포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설계관련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객확보 경쟁이 금융업권간에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채권의 도입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장수위험의 헤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장수 위험관리 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했던 관련 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가 노후 대비 각종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금융권 또한 관련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사들은 전문 노후설계 컨설턴트의 육성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필요

금융위에서 발표한 100세 시대관련 정책안들은 향후 1~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금융당국의 연금포털 구축에 따라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노후설계관련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각 금융사들은 전문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금관련 상품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자산운용 능력의 향상을 통한 운용성과의 차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외부 자산운용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육성 노력과 더불어 외부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자산운용 아웃소싱 전략 등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응해 적극적인 고객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가교형 주택연금 등 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장수채권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수위험의 헤지가 용이한 다양한 주택관련 연금상품의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후 간병 등 종합적인 노후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노후 토털 라이프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연계 상품의 개발을 통한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책당국은 100세 시대 금융정책 방안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 각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와 더불어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50대 김평균씨,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필요

최근 발표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50대를 대표하는 김평균씨(5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생명표에 따라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250만원[1]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평균씨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62만원씩 수령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25%, 12.5%를 감안하여 월 31만원을 수령한다.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해 20년전 개인연금에 가입했으며, 각 연령대별 저축액만큼을 연금신탁에 납입할 예정이다. 납입액은 50세 기준으로 매년 153만원이며,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2013년 11월 기준 은행 개인연금신탁 평균 수익률인 3.55%로 가정했다.

한편 김평균씨는 현재 2억 9천원 대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물자산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조정된 순실물자산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1억 원당 약 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 김평균씨는 매월 57만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신탁, 주택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83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85세까지 필요한 금액을 은퇴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1억 8,247만원이다. 현 시점에서 순금융자산 5,485만원에 포트폴리오 조정 자산인 4,001만원을 더해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6.76%의 수익률이 필요하며, 이는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결과에서 보듯이 50대 평균인 김평균씨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실물자산을 주택연금의 형태로 활용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족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보다 다소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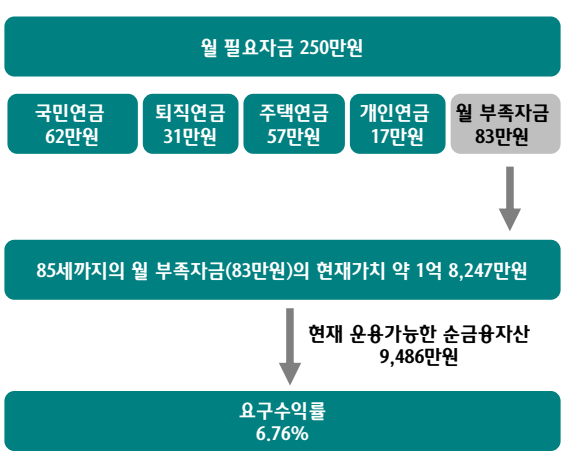
(단위 : 만원)

| 연령대 | 자산액 | 순금융자산 | 순실물자산 | 가처분소득 | 저축액 |
|---|---|---|---|---|---|
| 30세 미만 | 8,479 | 3,925 | 3,162 | 2,643 | 90 |
| 30~39세 | 23,028 | 5,407 | 12,762 | 3,924 | 133 |
| 40~49세 | 33,115 | 5,027 | 21,224 | 4,326 | 147 |
| 50~59세 | 42,479 | 5,485 | 29,056 | 4,491 | 153 |
| 60세 이상 | 32,587 | 3,421 | 25,055 | 2,167 | 74 |
| 전체 평균 | 32,557 | 4,733 | 22,004 | 3,645 | 124 |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추정

## 김평균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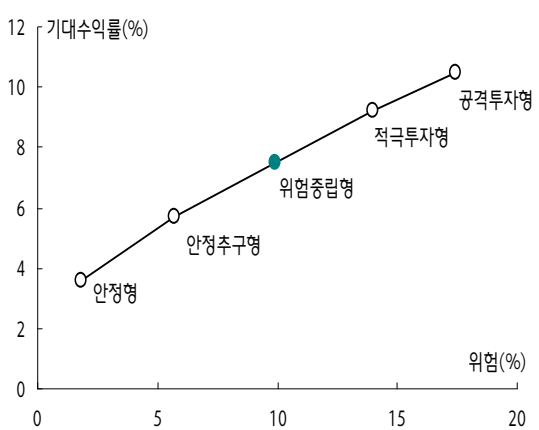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김평균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6.76%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김평균씨는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1월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2.5%, 해외주식 15.0%, 중위험형 17.5% , ELS/ELD에 17.5%, 국내외 채권형 25.0%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전략이다. 12월 FOMC회의에서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저금리 기조가 뒷받침될 예정으로 향후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 및 일본 등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산별 투자비중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진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중립형 전략은 안정추구형에 비해 주식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내 증시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크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대만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과 같이 국내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성장형 등 일반 주식을 매수하되, 배당시즌 마무리에 따라 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해외주식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이머징 시장의 회복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주 편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횡보 흐름이 예상되는 바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위험형 상품과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의 비중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 자산구분 | 안정형 | 안정 추구형 | 위험 중립형 | 적극 투자형 | 공격 투자형 |
|---|---|---|---|---|---|
| 국내주식 | – | 10.0 | 12.5 | 32.5 | 45.0 |
| 해외주식 | – | – | 15.0 | 27.0 | 27.5 |
| 원자재 | – | – | – | – | – |
| 중위험형 | 15.0 | 17.5 | 17.5 | 9.5 | 9.5 |
| ELS/ELD | 10.0 | 17.5 | 17.5 | 10.0 | 10.0 |
| 국내채권 | 40.0 | 22.5 | 12.5 | 5.0 | 2.5 |
| 해외채권 | – | 5.0 | 10.0 | 7.5 | 2.5 |
| 현금성 | 35.0 | 27.5 | 15.0 | 8.5 | 3.0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 투자상품은 해외 주식을 포함하는 혼합형 상품 구성이 필요

1월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국내외 주식 비중을 27.5% 이상 유지하기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12.5%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코스피200을 추종하여 시장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보악사파워인덱스(주식-파생)A1,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A, 대형주중심으로 업종내 베스트 종목에 투자하는 트러스칭기스칸(주식)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5%를 투자하는 해외주식은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성장모멘텀이 기대되는 유로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경기 회복에 민감한 소비재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채권은 기업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해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온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에 투자하며, 5%를 투자하는 해외채권은 미국 하이일드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을 중심으로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되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7.5%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롱숏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α를 추구하며,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구조화상품은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LS상품에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17.5%이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MMDA/MMT의 비중을 15.0%로 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A씨는 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며, 50세부터는 은퇴 시까지 매년 153만원을 납입할 예정이다.

###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 구분 | 자산 | 유형 | 상품명 | 운용사 | 비중 |
|---|---|---|---|---|---|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 국내주식 | 인덱스형 | 교보악사파워인덱스(주식-파생)A1 | 교보악사 | 4% |
| | | 일반주식형 |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 A | 하나UBS | 4% |
| | | 일반주식형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 A | 트러스톤자산운용 | 4.5% |
| | 해외주식 | 미국 |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 피델리티 | 5% |
| | | 유럽 |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 슈로더 | 5% |
| | | 섹터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A | 미래에셋 | 5% |
| | 대안 | 중위험형 |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 A | 마이다스 | 17.5% |
| | | 구조화 | ELS(ELF/ELT) | - | 17.5% |
| | 국내채권 | |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 흥국자산운용 | 12.5% |
| | 해외채권 | |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 | JP모간 | 10% |
| | 현금성 | | MMF/MMDA/MMT | - | 15% |
| | 합계 | | | | 100% |
| 연금저축보험 | | 매년 153만원 납입 | | | |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 1월 주식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 영향으로 탄력적 반등 기대

Fed가 양적완화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매월 100억달러로 적은 편이며, 초저금리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투자매력은 양호한 편이다. 이머징 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회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회복 개선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대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대만 증시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1월 이후 탄력적 반등이 기대된다.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환율과 기업이익 증가율인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유효한 상황에서 교역량이 증가하면 환율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201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한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만 증시와 같이 한국 증시도 반등 흐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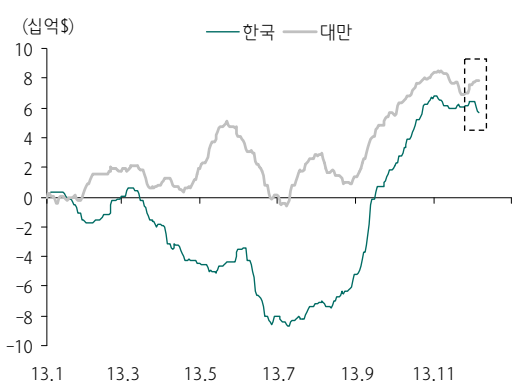
## 테이퍼링 실시에도 금리는 박스권 등락 예상

11~12월 초까지 테이퍼링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로 금리는 상승했다. 이후 美 11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글로벌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하락은 제한적이었으며 달러 강세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1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7개월째 2.50%에서 동결되었으며, 일부 엔저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에 한국은행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1월에도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초 금리는 테이퍼링 선반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은 크지 않겠으나 펀더멘털 개선으로 하락 폭도 제한되며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동양 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심리가 다소 진정되며 소폭의 축소세가 예상되나 등급별 차별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과 대만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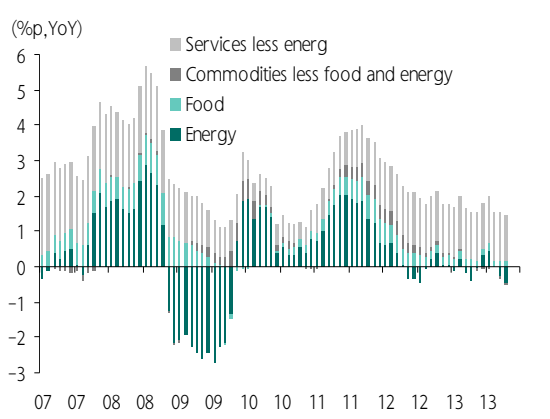
###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 해외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 지속이 예상

미국 경제의 물가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지표들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 역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1%를 하회하고 있다. 물론 물가하락이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물가 안정 요인이 강하다. 미국은 IT를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은 경기 회복이 1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셰일가스 등 에너지 혁명에 따른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하고, 통화완화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해에도 유로존 경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1월 일본 경제는 수출 경기의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출구전략과 BOJ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으로 엔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승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도 기대된다.

### 미국 소비자물가의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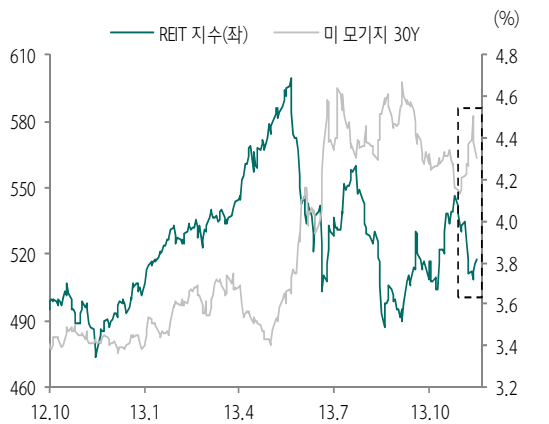

주 : 미국 소비자물가 전년비 상승률의 항목별 기여도를 의미
자료 :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중국은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맞물려 IPO의 재개가 증시의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도시화 등의 정책으로 경기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브라질은 3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환율도 약세를 보였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리츠시장은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움직임에 연동될 전망

리츠 가격은 금리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이어가다가 테이퍼링 가능성 부각에 따른 美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하락하였다. 부동산 관련 경제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여 리츠 가격에 뚜렷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되었으나 버냉키 쇼크 때만큼의 충격은 없는 가운데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리츠가격 조정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 글로벌 리츠 및 美 모기지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 노인빈곤 위험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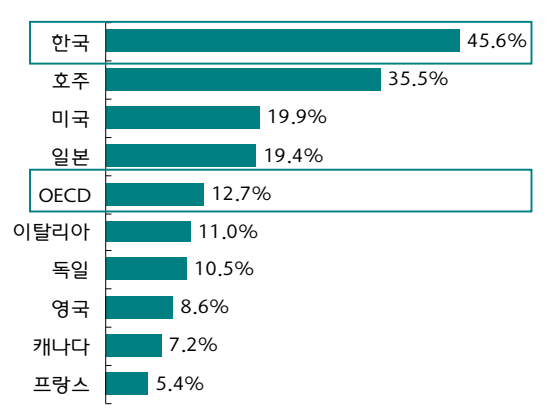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령빈곤 위험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주택을 활용한 노후 실질소득 확대가 필요"

2013년 11월에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은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령빈곤 위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연금부담 증가와 함께 연금제도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OECD는 연금제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해결책 중 하나로 주택을 활용한 제도, 즉 역모기지(주택연금) 활성화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재정 상태가 나빠진 각국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의 개혁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15.1%에서 12.8%로 줄이는데 성공했으나 세계 각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연금제도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OECD는 향후 세금을 내는 근로자보다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취업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향후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연금 수령 나이가 67세를 넘어서고 동시에 현재 사회 초년생들은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청년층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수명 연장으로 퇴직 후의 삶이 길어져 공적 연금의 재원 부족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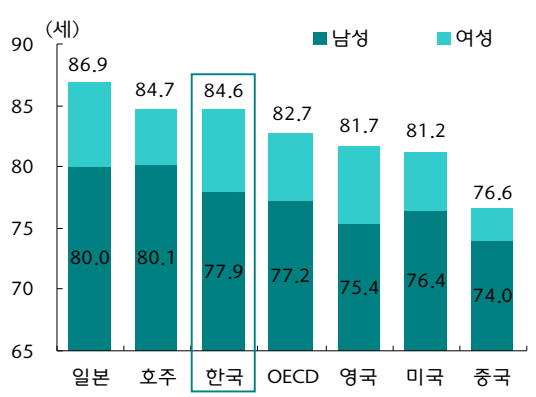
한편 국내의 경우 유효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남성 71세, 여성 70세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공적연금시스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현재 연금지출이 GDP 대비 약 2%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국내 노인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인 12.7%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국내의 노인빈곤 문제는 기대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공적연금시스템이 성숙 단계로 접어 들어도 현세

###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2000년대 후반)




자료 : OECD

### OECD 주요국 기대수명(2010-2015)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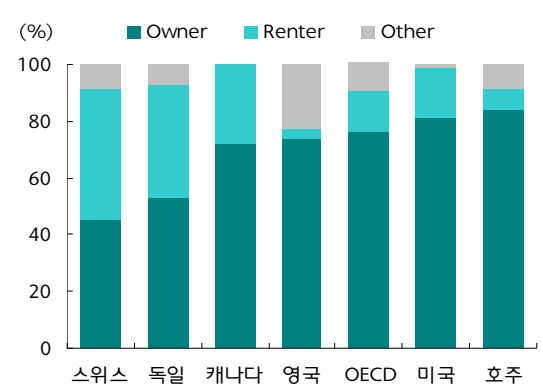
대 노인빈곤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65세 이상 1인 당 근로연령인구(노인부양비율)는 5.6명으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향후 국내 출산율은 현재 1.32에서 50년 후 1.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65세 기점 기대수명도 여성 29.5세, 남성 23.8세로 2060-65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62년에는 노인부양비율이 1.2명으로 낮아져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국내 연금 재원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 정책도 노령층 근로자 수용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OECD는 연금 수령자들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은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연금을 받을 때 주택양도 계획이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용해 국가가 재정위기 상태에 봉착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80년대 이후 자가 주택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5세 이하 인구의 주택보유율이 60%인 반면 65세 이상 주택보유율은 77%로 높아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면 '귀속임대료(Imputed rent)' 개념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유럽 연금수령자들의 빈곤율이 7%p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연금(역모기지)은 보유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성 및 불확성이 커 연금으로의 완전대체가 힘들다. 따라서 OECD는 세대간 균형(inter-generation equity)과 세대내 균형(intra-generation)의 조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상품을 출시해 판매했으나 짧은 역사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0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주택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택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열악한 소득구조로 인한 의료비 증대 및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2013.11)

##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주택보유율(2011)




자료 : OECD

## OECD와 비교한 주요 지표

| | | Korea | OECD |
|---|---|---|---|
| 총소득대체율 | 평균소득자(%) | 39.6 | 54.4 |
| | 저소득자(%) | 59.2 | 71.0 |
| 공적연금 지출 | %GDP | 2.1 | 7.8 |
| 기대수명 | 출생시 | 81.3 | 79.9 |
| | 65세 기점 | 19.5 | 19.1 |
| 65세 이상 인구 | 근로연령층 대비 비중(%) | 17.9 | 25.5 |
| 평균 소득(연간) | 한화(백만원) | 38.5 | 45.5 |

자료 : OECD

## 2014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 이상 임금 변동시 변동된 임금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지며, 근로자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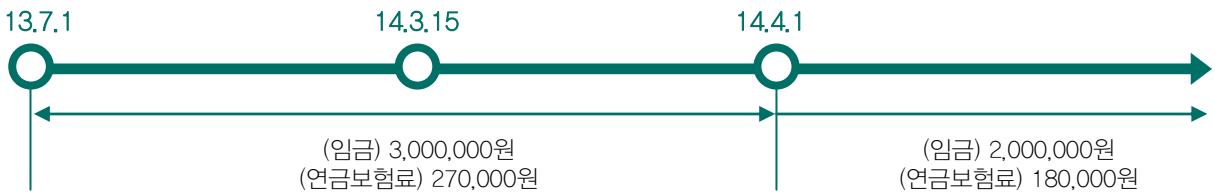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변동된 임금 기준의 연금보험료 납부 및 근로자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 연장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우선 현재 근로자가 납부(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근로소득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일정수준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임금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들은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별도로 납부하면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가 개별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성 제고 및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로 요약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12)

### 변경된 연금보험료 납부 사례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14.2월)으로 변경된 경우
- 2014.3.15.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300만원 → 200만원)
  ▷ 2014.4월부터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자료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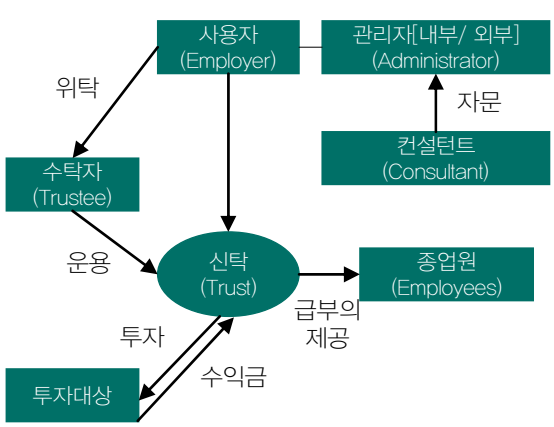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정립방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연금 정책 필요"**

2013년 12월 한국연금학회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정립방안" 이 발표되었는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금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이 1:1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절차여서

###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자료 : 한국연금학회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탁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바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되고 연금 수급권 등 근로자 이익 보호에 유리하고 제도의 유연성도 있다. 또한 운용관리의 투명성 등 장점이 많아 선진국에서도 기금형 및 기금형·계약형을 병행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비영리 재단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우려가 존재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IRP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한 근로자 표본 중 가입 후 7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62%에 달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50~60세(67%)가 30세 미만(56%)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고령자일수록 즉시해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입금액 구간별 해지율은 20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업종별 해지율은 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50대 이후의 장년층과 높은 입금액의 해지가 많다는 것은 결국 특정연령층의 특정상황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통해 IRP 해지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중산정산 요건을 보다 완화시킨 인출조건 설계도 필요할 것이다.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역할 정립방안", 한국연금학회 추계정책토론회, 2013.12 )

# 유언대용신탁
## 가족간 불화를 막는 상속설계서비스

### 노년기 자산은 물론 사후자산관리까지 가능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한 후 고객이 사망하면 고객이 생전에 지정했던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신탁상품이다. 살아있을 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도 불린다. 생전에는 가입자 본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지난 2012년 7월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면서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개정 신탁법 시행 이전까지 출시되었던 유언신탁의 경우 유언 보관업무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있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에 비해 범위가 넓다. 즉, 유언신탁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후신탁에 한정되나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에 해당하여 유언에 따른 상속관리에 더해 생전 기간 중 재산관리도 수행한다. 고객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회사에 재산을 위탁하면서 우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제3자 등에게 재산을 배분하면 된다.

### 금융사 신탁계약만으로 유언장 대체

유언장과 비교하여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언장은 한 번 상속이 이루어지면 다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 연속신탁의 설계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 파산 시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황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언장 작성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보편화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수탁재산 규모, 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수수료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 |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
| 심리적 거부감 | 유언서 작성으로 심리적 거부감 높음 | 신탁계약서 작성으로 심리적 부담감 낮음 |
| 방식 |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으로 제한, 엄격한 요건 존재 | 고객과 신탁회사간 계약서 작성이어서 특별한 방식이 없고, 고객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 |
| 유언집행의 투명성 | 유언장의 효력, 유언집행자 문제 등으로 상속인들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를 실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음 |
| 생전 재산관리 | 특별한 재산관리는 없음 | 신탁회사가 효율적 재산관리를 대행, 수익을 지급 |
| 수증자 지정 | 순차적 수증자 지정이 불가능 | 순차적 수증자 지정이 가능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3-05840호
CC브랜드131111-26

하나금융그룹

## 유언장의 빈틈을 채우는 든든한 유산플랜 하나 Living Trust

**유언장 없이도 고객의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전에도 신탁에 의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고객님 사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후에도 고객님(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관리 및 운용까지도 할 수 있는 든든한 상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생전·사후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원하는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연속신탁 — 상속플랜에 따라 수익자를 연속하여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 종합재산관리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종합하여 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 법률상담, 세무상담, 부동산컨설팅 등 상속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행은 본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된다 하나은행

# 겨울철 건강 관리

기온이 연일 영하로 떨어지면서 겨울철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기온이 내려가면 근육, 혈관, 신경이 위축되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할 겨울철 건강 문제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뇌혈관질환, 관절염의 증상 악화, 골절 및 낙상, 감기나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 있다.

##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지는 겨울

뇌졸중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해 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뇌졸중은 평소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에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진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으로 겨울철이 되면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을 조심해야 할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환자와 흡연자이다.

## 골절과 낙상 주의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며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부족해져 관절염 증상이 악화된다. 또,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한번 생긴 골절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로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조를 하여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어야 한다.

### 골다공증

정상적인 뼈　　골다공증환자의 뼈

골다공증: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자료 : 네이버캐스트

###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길라잡이

| | 권장량 |
|---|---|
| 과일류 | 사과(중) ½개, 귤(중) 1개, 포도(중) 15알, 오렌지주스 ½컵 |
| 채소류 | 콩나물 1접시(70g), 시금치나물 1접시(70g), 배추김치 1접시(40g), 오이소박이 1접시(60g) |
| 고기·생선·달걀·콩류 | 육류 1접시(60g), 닭고기 1조각(60g), 생선 1토막(60g), 달걀 1알(60g), 두부 두쪽(80g) |

자료 : 하나은행

## 적당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질환 예방

추운 날씨로 건조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실내외 기온차가 심해져 감기, 독감,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난다. 감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며 환기를 자주 시키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까지 건조해져

아파트는 난방이 잘되고 습도가 낮아 피부 건조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비누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비누가 피부의 유 ·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더욱 건조해진다. 피부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가급적 비누 목욕을 삼가하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 등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적고 근육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므로 보온성이 좋은 내의나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겨울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춥다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한다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고혈압, 관절염 등 지병이 있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겨울철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길라잡이

1. 과일 · 채소는 각각 하루 2회 이상과 7회 이상 섭취함으로써 섬유소 부족 등으로 인한 노인성 변비 등 각종 질환 예방

– 당분 및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소는 고기와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충분히 넣어 먹어야 소화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

2. 면역력 강화 등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및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 생선, 계란, 콩 등은 하루 4~5회 섭취

– 소화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육류 조리시 지방을 줄이고, 굽거나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볶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 등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고, 우유 소화가 힘든 경우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거나 데워서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4. 짠 음식은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유발과 관련이 있으므로 가급적 싱겁게 조리 및 섭취하는 것이 좋다. 국내 1일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소금 5g)이다.

– 국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뜨거울 때 간을 하지 않고, 섭취시에도 추가로 소금 간 등을 하지 말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으로 국물을 내면 맛의 상승효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행복디자인 )

## 하나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익신탁 기금 및 성금 기탁

하나은행은 사회복지 및 육영 등 공익 기여를 목적으로 모집한 공익신탁기금과 연말 이웃돕기성금 등 총 2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은행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복지향상과 더 많은 소외된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 하나대투증권, ‘KTB 중국1등주펀드’ 판매

하나대투증권은 중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KTB 중국1등주펀드’를 판매한다. 동 펀드는 홍콩H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15개 내외로 압축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펀드의 기본 운용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나대투증권이 맡고 운용은 KTB자산운용에서 책임진다.

## 외환은행, ‘Hybrid 외화 MMDA’ 출시

외환은행은 유동성과 편리성을 갖춘 수시입출금식 외화 MMDA 예금인 ‘Hybrid 외화MMDA’를 출시했다. 동 상품은 외화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부리식과 할인식 등 이자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달러화, 유로화 등 14개 통화로 예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하나SK카드, ‘재능기부 2호점’ 재오픈 기념 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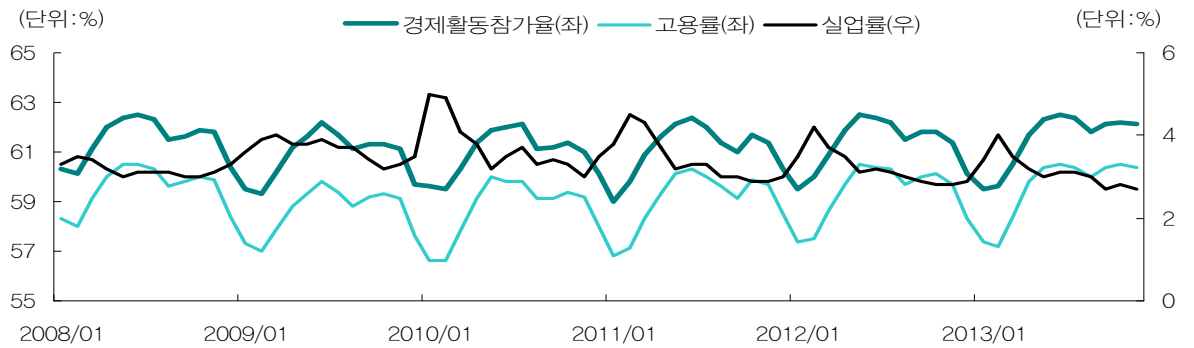
하나SK카드는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을 받는 가맹점을 선정해 사업컨설팅부터 디자인, 환경개선, 마케팅까지 약 3개월간 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리뉴얼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재오픈 행사를 가졌다. 동 활동은 자립의지가 강한 1곳을 선정해, 각기 다른 업무와 재능을 가진 9명의 직원이 봉사단으로 참여했다.

# 경제 활동

통계청

## 1. 경제활동 및 고용

| 연도 | 경제활동 참가율 | | | | | | | 고용률 | | | | | | |
|---|---|---|---|---|---|---|---|---|---|---|---|---|---|---|
| | 전체 | 15~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 60세 이상 | 전체 | 15~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 60세 이상 |
| 2008 | 61.5 | 6.5 | 63.6 | 75.2 | 80.1 | 72.0 | 37.7 | 59.5 | 5.9 | 59.1 | 72.9 | 78.4 | 70.6 | 37.2 |
| 2009 | 60.8 | 6.2 | 63.1 | 74.0 | 79.6 | 72.1 | 37.3 | 58.6 | 5.4 | 58.2 | 71.3 | 77.7 | 70.3 | 36.7 |
| 2010 | 61.0 | 6.9 | 63.2 | 74.6 | 79.8 | 72.7 | 37.0 | 58.7 | 6.1 | 58.2 | 72.0 | 77.8 | 70.9 | 36.0 |
| 2011 | 61.1 | 7.6 | 63.2 | 74.7 | 80.1 | 73.1 | 37.4 | 59.1 | 6.8 | 58.5 | 72.2 | 78.4 | 71.6 | 36.5 |
| 2012 | 61.3 | 7.7 | 62.8 | 75.0 | 80.0 | 73.8 | 38.4 | 59.4 | 7.0 | 58.1 | 72.7 | 78.3 | 72.2 | 37.5 |
| 2013.1~11 | 61.5 | 7.6 | 61.6 | 75.4 | 80.0 | 74.5 | 39.4 | 59.6 | 6.8 | 56.8 | 73.1 | 78.4 | 73.1 | 38.6 |
| 2013.10 | 62.2 | 6.9 | 61.4 | 75.6 | 80.7 | 75.8 | 41.4 | 60.5 | 6.4 | 56.6 | 73.6 | 79.3 | 74.6 | 40.9 |
| 2013.11 | 62.1 | 6.7 | 62.0 | 75.9 | 80.6 | 75.5 | 40.4 | 60.4 | 6.2 | 57.3 | 73.9 | 79.4 | 74.4 | 39.9 |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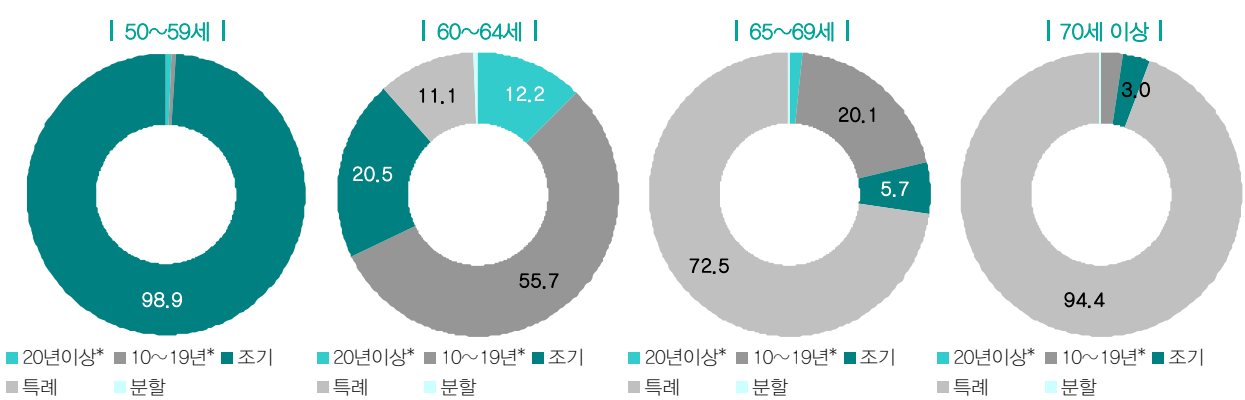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 연도 | 총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 임의 가입자 | 임의계속 가입자 |
|---|---|---|---|---|---|---|---|---|
| | | 사업장 | 가입자 | 계 | 농어촌 | 도시 | | |
| 2008 | 18,335,409 | 921,597 | 9,493,444 | 8,781,483 | 1,940,510 | 6,840,973 | 27,614 | 32,868 |
| 2009 | 18,623,845 | 979,861 | 9,866,681 | 8,689,861 | 1,925,023 | 6,754,838 | 36,368 | 40,935 |
| 2010 | 19,228,875 | 1,031,358 | 10,414,780 | 8,674,492 | 1,951,867 | 6,722,625 | 90,222 | 49,381 |
| 2011 | 19,885,911 | 1,103,570 | 10,976,501 | 8,675,430 | 1,986,631 | 6,688,799 | 171,134 | 62,846 |
| 2012 | 20,329,060 | 1,196,427 | 11,464,198 | 8,568,396 | 1,956,215 | 6,612,181 | 207,890 | 88,576 |
| 2013.9 | 20,680,148 | 1,282,145 | 11,838,256 | 8,544,718 | 1,956,620 | 6,588,098 | 187,500 | 109,674 |
| 2013.10 | 20,715,284 | 1,286,350 | 11,897,360 | 8,522,524 | 1,957,480 | 6,565,044 | 183,289 | 112,111 |

## 2. 2013년 10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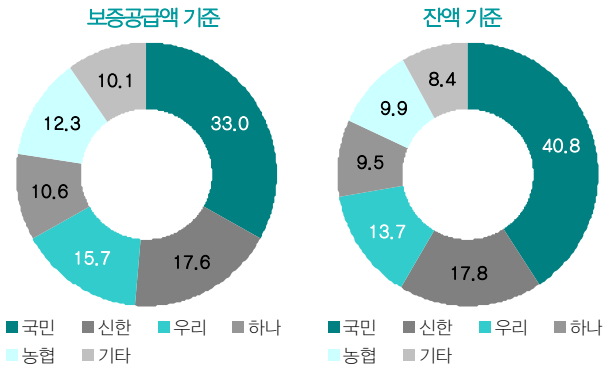
| 연도 | 신규가입 | 보증공급액 |
|---|---|---|
| 2009.12 | 1,124 | 17,474 |
| 2010.12 | 2,016 | 30,361 |
| 2011.12 | 2,936 | 41,000 |
| 2012.12 | 5,013 | 69,006 |
| 2013.1~11 | 4,896 | 58,295 |
| 2013.10 | 553 | 6,128 |
| 2013.11 | 475 | 5,526 |

## 2. 2013년 11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 은행 | 보증공급액 | 잔액 |
|---|---|---|
| 국민은행 | 1,826 | 88,247 |
| 신한은행 | 1,007 | 38,479 |
| 우리은행 | 868 | 29,628 |
| 하나은행 | 586 | 20,580 |
| 농협 | 682 | 21,356 |
| 기타 | 557 | 18,074 |
| 합계 | 5,526 | 216,364 |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 1. 2013년 9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 구분 | 근로자 | | | | 사업자 | | | |
|---|---|---|---|---|---|---|---|---|
| | 합계 | DB형 | DC형 | 기업형IRP | 총계약수 | DB형 | DC형 | 기업형IRP |
| 은행 | 7,527,540 | 5,091,089 | 1,324,333 | 84,837 | 1,276,455 | 84,139 | 104,756 | 46,512 |
| 생명보험 | 3,025,356 | 2,726,947 | 181,750 | 3,531 | 218,594 | 74,035 | 17,105 | 1,792 |
| 손해보험 | 1,044,940 | 1,824 | 55,566 | 271 | 57,247 | 1,926 | 18,000 | 230 |
| 증권 | 2,575,067 | 2,330,760 | 134,841 | 392 | 118,730 | 2,946 | 6,480 | 242 |
| 근로공단 | 93,696 | – | 91,356 | 470 | 24,881 | – | 24,655 | 2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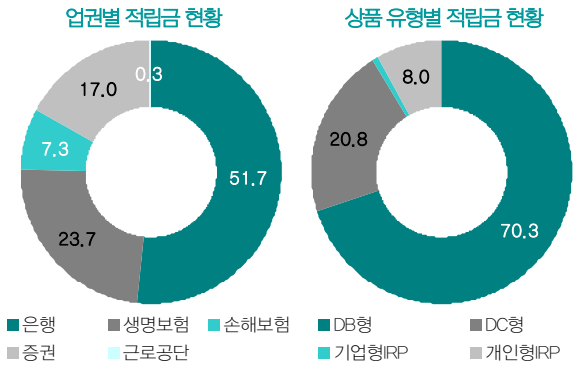
##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 구분 | 합계 | DB형 단독 도입 | | DB, DC 동시도입 | | DC형 단독도입 | | 기업형IRP 도입 | |
|---|---|---|---|---|---|---|---|---|---|
|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010 | 94,455 | 34,414 | 36.4 | 1,590 | 1.7 | 34,904 | 37.0 | 23,547 | 24.9 |
| 2011 | 139,151 | 53,351 | 38.3 | 2,876 | 2.1 | 56,476 | 40.6 | 26,448 | 19.0 |
| 2012.11 | 194,209 | 65,531 | 33.7 | 4,129 | 2.1 | 95,317 | 49.1 | 29,232 | 15.1 |
| 2012.12 | 203,488 | 68,031 | 33.4 | 4,615 | 2.3 | 101,086 | 49.7 | 29,756 | 14.6 |
| 2013.3 | 215,962 | 70,868 | 32.8 | 4,924 | 2.3 | 109,820 | 50.8 | 30,350 | 14.1 |
| 2013.6 | 226,994 | 73,301 | 32.3 | 5,300 | 2.3 | 117,808 | 51.9 | 30,585 | 13.5 |
| 2013.9 | 235,716 | 74,543 | 31.6 | 5,549 | 2.4 | 123,650 | 52.5 | 31,974 | 13.6 |

## 3. 2013년 9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 구분 | 합계 | DB형 | DC형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
| 합계 | 720,284 | 506,156 | 149,601 | 6,711 | 57,816 |
| 은행 | 372,649 | 227,546 | 98,447 | 6,484 | 40,172 |
| 생명보험 | 170,517 | 142,304 | 20,409 | 179 | 7,625 |
| 손해보험 | 52,507 | 45,979 | 4,599 | 11 | 1,918 |
| 증권 | 122,488 | 90,328 | 24,052 | 22 | 8,087 |
| 근로공단 | 2,123 | – | 2,093 | 15 | 8 |




## 4. 2013년 9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 구분 | | | DB형 | | DC형 | | 기업형 IRP | | 개인형 IRP | | 계 |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원리금보장 | 예적금 | | 257,463 | 50.9 | 90,840 | 60.7 | 5,858 | 87.3 | 36,375 | 62.9 | 390,536 | 54.2 |
| | 금리확정형보험 | | 176,500 | 34.9 | 15,241 | 10.2 | 130 | 0.0 | 7,333 | 12.7 | 199,204 | 27.7 |
| | 금리연동형보험 | | 18,279 | 3.6 | 4,944 | 3.3 | 55 | 1.9 | 1,365 | 2.4 | 24,643 | 3.4 |
| | 국채 | | 491 | 0.1 | 1,111 | 0.7 | 0 | 0.8 | 1,497 | 2.6 | 3,099 | 0.4 |
| | 통안증권 |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정부보증채 |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원리금보장ELS | | 36,658 | 7.2 | 1,996 | 1.3 | 0 | 0.0 | 2,072 | 3.6 | 40,726 | 5.7 |
| | RP | | 8,158 | 1.6 | 1,852 | 1.2 | 2 | 0.0 | 799 | 1.4 | 10,810 | 1.5 |
| | 발행 및 표지어음 | | 0 | 0.0 | 150 | 0.1 | 0 | 0.0 | 40 | 0.1 | 190 | 0.0 |
| | 기타 | | 0 | 0.0 | 1 | 0.0 | 0 | 0.0 | 5 | 0.0 | 7 | 0.0 |
| 원리보장금 소계 | | | 497,548 | 98.3 | 116,135 | 90.1 | 6,045 | 90.1 | 49,487 | 85.6 | 669,216 | 92.9 |
| 실적배당 | 실적배당형 보험 | | 166 | 0.0 | 1,536 | 0.1 | 9 | 0.1 | 352 | 0.6 | 2,064 | 0.3 |
| | 집합투자증권 | 주식형 | 780 | 0.2 | 38 | 0.0 | 0 | 0.0 | 30 | 0.1 | 849 | 0.1 |
| | | 혼합형 | 698 | 0.1 | 7,968 | 0.2 | 14 | 0.2 | 1,096 | 1.9 | 9,776 | 1.4 |
| | | 채권형 | 3,616 | 0.7 | 21,515 | 9.0 | 607 | 9.0 | 3,182 | 5.5 | 28,921 | 4.0 |
| | | 재간접 | 80 | 0.0 | 317 | 0.0 | 0 | 0.0 | 37 | 0.1 | 434 | 0.1 |
| | | 부동산/실물/특별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 기타 | 1,105 | 0.2 | 0 | 0.0 | 0 | 0.0 | 0 | 0.0 | 1,105 | 0.2 |
| | | 집합투자증권 소계 | 6,446 | 1.3 | 31,374 | 9.4 | 631 | 9.4 | 4698 | 8.1 | 43,148 | 6.0 |
| | 직접투자 | | 316 | 0.1 | 127 | 0.0 | 0 | 0.0 | 294 | 0.5 | 737 | 0.1 |
| 실적배당 소계 | | | 6,762 | 1.3 | 31,501 | 9.4 | 631 | 0.0 | 4,992 | 8.6 | 43,885 | 6.1 |
| 대기성 자금 | | | 1,845 | 0.4 | 1,964 | 0.5 | 36 | 0.5 | 3,338 | 5.8 | 7,183 | 1.0 |
| 총계 | | | 506,156 | 100.0 | 149,601 | 100.0 | 6,711 | 100.0 | 57,816 | 100.0 | 720,28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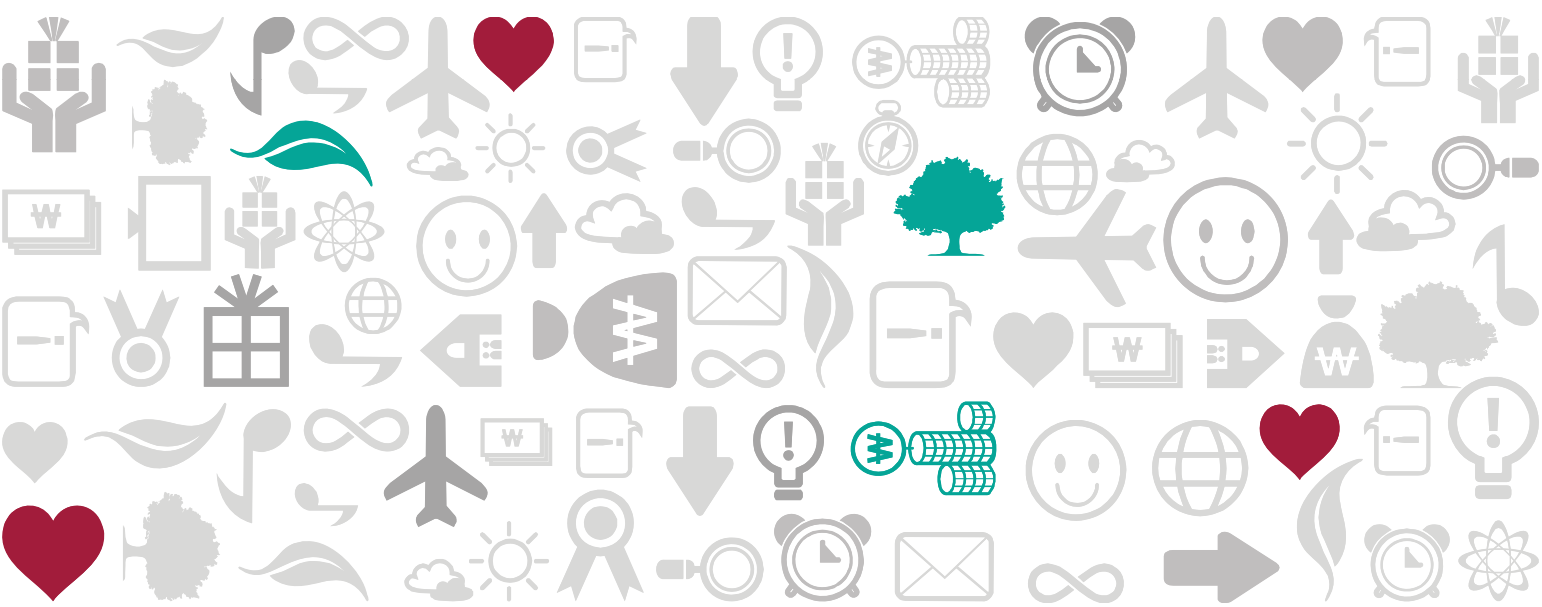
## 5. 2013년 9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 구분 | 은행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증권 | | 근로복지공단 | |
|---|---|---|---|---|---|---|---|---|---|---|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원리금보장형 | 351,391 | 94.3 | 161,905 | 94.9 | 50,834 | 96.8 | 102,998 | 84.1 | 2,088 | 98.3 |
| 실적배당형 | 17,575 | 4.7 | 7,725 | 4.5 | 1,339 | 2.6 | 17,234 | 14.1 | 13 | 0.6 |
| 기타 | 3,684 | 1.0 | 887 | 0.5 | 334 | 0.6 | 2,256 | 1.8 | 22 | 1.1 |
| 합계 | 372,649 | 100.0 | 170,517 | 100.0 | 52,507 | 100.0 | 122,488 | 100.0 | 2,123 | 100.0 |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4.01[No.01]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